

니카라과(Nicaragua)

2007. 3.

해외경제연구소

면적	121천km ²	화폐단위	Cordoba(C)
인구(2006)	5.9백만 명	환율(2006년평균)	17.57C/USD
GDP(2006)	53억 달러	회계년도	1.1-12.31
1인당GDP(2006)	893달러		

1. 경제동향

가. 국내경제

단위 : %

구 분	2002	2003	2004	2005	2006e
경제성장률	0.8	2.3	5.1	4.0	3.5
재정수지/GDP	-4.2	-5.4	-4.3	-5.8	-6.0
소비자물가상승률	4.0	5.2	8.4	9.4	9.1

□ 중남미 최빈국이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

- 1990년대 후반 이후 양호한 경제성장(1997-2001년 평균 경제성장률 5.0%)을 이루었으나, 2002년에는 블라노스 정부의 긴축정책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.8%로 낮아졌음.
- 그러나 2003년 이후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, 커피와 사탕수수의 작황 호전,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보세가곡무역(마길라산업) 호조 등으로 성장세를 회복하여 2004년에는 5.1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, 2005~2006년에도 3~4%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- 2007년에는 신임 오르테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명확히 드러나고 IMF와의 PRGF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투자 계획들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.7%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물가 상승세 지속

- 2000년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동국의 물가상승률은 2002년부터 고유가 지속, 꼬르도바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였음. 2003년 5% 수준이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5년에는 9.4%로 상승하였고, 2006년에도 고유가 지속 및 이에 따른 국내 가격 조정의 시차 발생으로 인해 9.1%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.
- 금년에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압력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소비 증대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9.8%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, 2008년에는 DR-CAFTA 발효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7.1%로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.

□ 재정적자 폭 확대

- 니카라과는 매년 4~5%대의 만성적인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, IMF 등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.
- 1999년 이후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세수기반 취약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으나, 정부의 긴축정책과 재정개혁조치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GDP 대비 10.2%에서 2002년 4.2%로 대폭 감소하였음.
- 그러나 공무원 개혁,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이전지출, 고유가에 따른 교통 및 에너지 보조금 증가로 인해 200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.8%의 적자를 기록한 데에 이어, 2006년에도 대선 및 총선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6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.

- 금년 1월 취임한 오르떼가 대통령이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를 계획함에 따라 2007년에도 GDP 대비 6.3%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.

나. 국제경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2	2003	2004	2005	2006e
경 상 수 지	-699	-651	-696	-800	-883
경상수지/GDP	-17.4	-15.9	-15.5	-16.3	-15.0
상품수지	-918	-972	-1,075	-1,314	-1,400
수 출	917	1,050	1,365	1,552	1,900
수 입	1,834	2,021	2,440	2,865	3,300
외환보유액	448	502	668	728	723
총외채잔액	6,485	6,915	5,100	5,000	3,800
총외채/GDP	161.1	168.5	113.4	101.8	72.1
D. S. R.	9.9	10.6	5.8	5.1	5.4

□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심화

-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기반의 미비에 따른 소비재 수입과 산업용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,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큰 폭의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.
-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14억 달러에 달하였고,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15%인 8억 달러를 기록함.
- 2007년에는 DR-CAFTA 발효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소비재의 수입 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1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. 반면,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해외 근로자 송금유입으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다.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

□ 취약한 수출 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

- 주요 수출품목이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, 육류 등 1차 산품으로 이들의 국제가격변동과 기후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 중간재, 자본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두 배에 달하며 이 차이를 국제기구 등의 원조와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음.

□ 인프라 부족 및 정치 불안정으로 투자 부진

- 니카라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석유 등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고,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며,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.
- 그러나 2006년 발효된 DR-CAFTA를 잘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대미 수출 증대를 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존재함.

□ IMF의 PRGF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정책 수행

- 2006년 재개되었던 IMF의 PRGF 프로그램이 2006년 12월 8일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신임 오르떼가 정부는 IMF와의 3년 만기의 새로운 PRGF 프로그램 개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.
- PRGF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제정책 수행이 니카라과에 대한 재정적자 보전 및 기타 자금 공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됨에 따라 본 협상의 타결이 오르떼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.

2. 정치·사회동향

□ 정치적 불안정 지속

- 콘트라반군(Recontras)의 반정부 활동과 산디니스타 세력과의 충돌 등으로 1994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치, 사회불안이 계속 되어 왔으며, 1996년 보수우파 자유동맹(AL)의 알레만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알레만 대통령 및 그 측근을 둘러싼 부패의혹, 좌익 산디니스타와의 토지소유권 반환 분쟁, 국영기업의 감원 및 민영화 계획에 대한 노조의 저항 등으로 정치, 사회 불안이 지속됨.

□ 2002년 블라노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국불안 지속

- 2001년 11월 대선에서 부통령을 지낸 엔리께 블라노스(Enrique Bolanos) 자유헌정당(PLC) 후보가 3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FSLN의 오르떼가 후보를 14%의 표차로 누르고 당선됨.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총선(총92석)에서도 PLC가 53석을 차지, 제1야당인 FSLN(38석)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.
- 그러나 블라노스 대통령이 2002년 1월 취임 이후 전임 알레만 대통령의 대규모 공금 유용사건의 강경 사법처리를 추진함에 따라 의회의 개혁, 기득권 세력간 갈등을 유발하여 정치적 어려움에 봉착함.
- 블라노스 대통령은 FSLN의 협조로 알레만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법개정에 성공하였으나, 블라노스 지지 국회의원이 PLC를 탈당한 9명에 불과하며, 알레만이 PLC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.
- 2004년 11월 알레만의 PLC와 오르떼가가 이끄는 FSLN은 협약을 체결하여 대통령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, 블라노스 대통령이 정국 혼란 해결을 위해 OAS(미주기구)의 중

재를 요청하는 데 성공하고, 온두라스 등 중미 지역 대통령들이 블라노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였음.

□ 2006년 11월 다니엘 오르떼가 대통령 당선

- 2006년 11월 5일 대통령선거에서 FSLN의 다니엘 오르떼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금년 1월 10일 취임하였음. 우파 세력이 ALN의 Eduardo Montealegre 후보(득표율 28%)와 PLC의 Jose Rizo Castellon 후보(득표율 27%) 지지세력으로 양분된 것이 오르떼가 후보 승리(득표율 38%)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.
- 그러나 야당이 전체 의석 92석 중 54석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오르떼가 대통령의 급진개혁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, 오르떼가 대통령은 25석을 차지하고 있는 PLC 당과 비공식적인 연합 관계를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.

□ 실업, 빈곤,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

- 세계은행의 빈곤축소 프로그램에 따라, 극빈층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빈곤층은 오히려 확대(전체인구의 75%)되고 있는 실정임. 국민의 상위 1%가 전체 소득의 15%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, 하위 20%는 겨우 2.0%의 소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.
- 허리케인 피해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고, 살인, 강도, 유괴 등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됨.
- 1994년 평화협정 체결이후 대규모의 소요/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, 정치적 혼란 및 사회 불안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.

□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곤 주변국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

- 산디니스타의 선거 패배 후, 외교 및 통상 부문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, 대만과는 꾸준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.
-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 등 인접 국가들과는 영토분쟁으로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, 특히 2005년 9월 코스타리카가 San Juan 강의 사용과 관련하여 니카라과를 국제사법재판소(ICJ: Int'l Court of Justice)에 제소함에 따라 코스타리카와 긴장관계를 형성하였으나, 그 밖의 중미 국가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베네수엘라와 관계 강화될 전망이나 대미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않을 듯

- 금년 1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니엘 오르떼가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향후 대미 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, 대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.
-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오르떼가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, 니카라과에 대한 에너지 공급, 정유공장 건설,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,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.
- 그러나 니카라과는 현재 IMF 등 국제기관으로부터의 경제적,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태임. 이에 따라 신임 오르떼가 대통령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난 1980년대 산디니스타 정부가 시행했던 사유재산 몰수 및 국유화정책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친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, 작년 발효된 DR-CAFTA를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강경 반미노선에 동참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.

3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□ HIPC 채무구제 실시

- 1990년 107억 달러(GNP의 1,000%)에 달하였던 동국의 외채는 1990년대 이후 파리클럽, IMF, 지역개발은행 등과의 채무재조정 협정을 통해 크게 축소되었음.
- 수차례의 채무재조정에도 불구하고, 허리케인 피해복구에 따른 공공 부문 투자확대로 2003년 말 기준 외채규모는 GDP의 163%인 62억 달러로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과도한 수준이었음.
- 그러나 니카라과는 2004년 1월 HIPC 결정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IMF,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파리클럽으로부터 45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을 수혜 받게 되어 향후 외채상환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음.
- 파리클럽은 2004년 3월 니카라과의 파리클럽 채무 9억 달러(NPV 기준)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, 기타 채권국 및 국제기구의 채무 탕감이 이루어져 2006년 말 니카라과의 외채규모는 GDP의 62%인 31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.
- 또한, 2005년 12월 IMF는 MDRI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) 하에서, 2005년 1월까지 발생한 니카라과의 IMF에 대한 133백만 달러 채무를 100% 탕감해주기로 결정하였으며, 2006년 7월에는 World Bank에서도 2005년까지 발생한 채무 694백만 달러를 전액 탕감해주기로 결정하였음.
- 금년 1월 25일, IDB는 역내 5개의 최빈국 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니카라과의 2006년 11월 기준 채무 15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786백만 달러를 탕감해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,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임.

□ 외채부담 여전히 과중

- 외채탕감으로 외채규모가 2005년 50억 달러에서 2006년 38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나, 여전히 GDP 대비 72.1%, 총수출 대비 170.3%에 달하는 등 동국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과중한 상태임.
- 2006년 말 외환보유액은 7억 달러로 수입의 2.7개월분에 불과하며,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를 국제금융기구 등의 원조자금 지원에 의해 보전하고 있어 실제 외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.

□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순위 최하위권

- Moody's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인 Caa1 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국제상업은행으로부터의 중장기 자금도입이 불가능함.
- OECD : 7등급(2005.6) → 7등급(2006.6)

□ 주요 ECA 지원태도 : 제한적 지원

- US EXIM : 중단기 제한적 인수 가능
- ECGD :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가능, 중기 인수 제한
- Hermes :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 있을 수 있음.

4. 요약 및 전망

- 니카라과 경제는 HIPC 채무구제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수출증가, 민간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- 200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FSLN의 다니엘 오르떼가 후보가 당선되었으나, IMF와의 협력하에 재정수지 개선 및 기업 투자유치 촉

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음.

- 니카라과는 파리클럽, IMF World Bank 등의 채무 탕감 결정 및 PRGF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등으로 외채 및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이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대규모 적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